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2년 7월 16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윤일환  
 디자인/제작 비온후(051-645-4115 / beohgo@naver.com)

## 학사 일정

- 6.18(월)~7.13(금) 2학기 교수계획표 입력
- 6.22(금) 하계휴가 시작
- 6.22(금)~28(목) 1학기 성적입력
- 6.22(금)~7.19(목) 여름 계절수업(4주)
- 7.3(화) 후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제출
- 8.1(수)~3(금) 2학기 수강신청
- 8. 23(목)~28(화) 2학기 재학생 현금등록
- 8.24(금)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9.3(월) 2학기 개강
- 9.3(월)~7(금) 2학기 수강정정
- 9.17(월)~21(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 9.21(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 Contents

##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몽골국립대학 사회과학대학은 4월 20일(금) 양교의 학술교류와 우의증진을 위한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교는 '교수, 대학원생, 학생의 교류', '학술자료 및 학술지의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학술회의 개최', '기타 양교의 관심 있는 주제의 학술 교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인문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정식에는 우리 대학에서는 인문대학장, 부학장, 대외교류본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몽골 측에서는 C. Erdenebayar 사회과학대학장 등 2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일본 조치대학(Sophia University)과도 유사한 학술교류협정이 6월 4일(월) 체결되었다.

이울러, 중국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및 베트남 호치민시 국가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이 각기 7월과 8월 중에 체결될 예정이다. 향후 인문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국제교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학년도 인문대학 명사초청 특강 개최



인문대학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 및 창조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2012학년도 인문대학 명사초청 특강이 10.16 기념관에서 열렸다. 5월 2일(수)에 개최된 제1회 특강은 부산문화재단의 남승우 대표이사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김성진 인문대학장과의 좌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진로



에 대한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제2회 특강은 6월 13일(수) 개최되었는데,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두

관 경상남도지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특강 전부터 언론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10.16 기념관이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룬 특강에서 김 지사는 “청년의 미래,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김 지사의 강연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민주화를 통한 국민통합” 등을 강조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12학년도 봄 인문대학 교수 연찬회 개최



4월 19일(목) 객원교수를 포함한 교수와 행정실직원 등 인문대 교직원 20명이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탐방 일정에는 예림서원, 생자대 부속농장, 퇴로리 여주씨 종가, 영남루, 표충비각, 사명대사 생가지 등이 포함되었다. 예림서원은 조선 전기 대학자였던 점필재 김종직(1431~9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67년(명종22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87년 복원된 것이다. 서원을 방문했을 때 예림서원 전교를 비롯하여 밀양 유림의 유생들이 직접 서원의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다음으로 생자대 부속농장을 방문하였는데,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을 비롯한 여러 교직원의 환대 속에 농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사, 약초농장 등을 둘러보았다. 여주씨 종가가 있는 퇴로리에서 점식식사를 한 후, 영남루, 표충비각, 사명대사 생가지 등에 대한 답사를 하였다. 연수회 일정은 저녁 식사와 더불어 인문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인문대학 교수 해외 연수 시행



금년 교수 연수회의 일환으로 인문대 교직원들은 6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의 청도, 곡부, 태안 지역을 다녀왔다. 이번 연수에는 29명의 교수와 행정실 직원 3명 등 총 32명이 참가하였는데, 특히 유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공묘 방문, 태안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답사, 중국 현지 동문화와의 만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공묘(孔廟)는 공자 사후 1년 되던 해 노(魯)나라의 애공(哀公)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한 사당으로서, 북경의 고궁, 태안의 대묘(岱廟)와 더불어 중국 3대 건축으로 꼽힌다. 이곳은 처음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의하던 행단에 대성전(大成殿)을 세운 것으로 시작해 그 후 역대 황제가 기부나 희사를 계속하여 명·청대에 현재의 규

모로 완성되었다. 이번 공모, 공부, 공림의 방문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효(孝)와 사회 협동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인(仁)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걸고 구현하고자 하였던 유교문화의 기원과 영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산은 중국 오악(五岳) 중 첫 번째인 산으로 진나라 시황제를 비롯한 고대 제왕들이 봉선의식을 행했던 신성한 산이다. 해발 1,545m로 산동성 구릉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며 산동성 동부, 제남시, 태안 등 3개 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 받아오던 태산을 오르며, 자연경관은 늠름하고 숙연하되 소박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가는 곳마다 돌비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 등을 통해 중화민족의 심미 관념과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연수기간 중 중국 현지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동문회 활성화 및 인문대학 발전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 3박 4일간의 해외연수의 성과를 짚어보는 것을 끝으로 모든 연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 인문대 학생해외파견

대외교류본부에서는 해외 어학연수의 기회제공 및 교환학생 인정을 통해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고자 2009년부터 학생 해외파견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인문대학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2012학년도 1학기에 중어중문학과가 중국 상해하동사범대학으로 10명, 독어독문학과가 독일 아아헨대학에 10명, 노어노문학과가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등으로 15명의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2012학년도 하계에는 중어중문학과가 중국 북경외국어대학에 28명의 학생을, 불어불문학과가 프랑스 프랑쉬-콩페대학교로 10명의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 2012 부산대 인문대학 여름농활



인문대학 7개 과의 학생 100여명은 6월 26일(화)부터 7월 3일(화)까지 7박 8일간 함양군 백전면, 마천면, 서상면 7개 마을에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을 다녀왔다. 첫 날인 6월 26일에는 함양 읍 곳곳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발대식을 진행하여 농활의 시작과 의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함양군의 주 재배작물은 감자와 양파로 7개 마을의 학생들은 주로 감자와 양파 농사를 도왔다. 각 마을에 따라 논 감매기, 감나무 밭 벌초, 수해지역 하천정비 사업, 오미자 순울리기, 고추밭, 갯잎 밭에서 일손을 도왔으며, 깨·팥 모종심기 등을 하였다. 일손 돕기 외에도 마을 어르신들을 뵙는 호별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미술활동, 놀이활동을 하였다. 또한 마을잔치를 열어 마을 주민들께 음식도 대접하고, 떡과 염색을 해드리는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함양 고운체육관에서 해단식을 진행하고 농활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번 2012년 부산대 여름 농활에 참가한 인문대 학생들은 7박 8일간의 일정을 통해 우리네 삶에서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

지를 마음 속 깊이 깨닫고 돌아왔다.

### 인문관 및 교수연구동 주변 추가 조경공사



인문관 및 교수연구동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경에는 인문대학 발전기금 천여만원이 투입되어 맥문동 4000본, 줄장미 및 목장미 150주, 연산홍 1000여주 등을 심었다. 특히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좋은 맥문동을 인문관 뒤편 음지에 다량 식재함으로써 주변 경관이 짙은 초록으로 물들 것이다.

### 인문대학 홈페이지 리뉴얼



대학홍보 강화 및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문대학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 오픈하였다. 이 홈페이지는 장학, 취업, 강연소식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 및 학부모에게 인문대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 2012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수상



연구 활동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주는 2012학년도 대학원 학술상 시상식이 5월 18일(금) 본관 301호실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박사과정(대학원 학술상) 7명과 석사과정(대학원 우수논문상) 5명 등 총 12명이었으며, 박사과정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석사과정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인문대학에서는 사학과 박사졸업생인 김인선(지도교수: 광차섭)이 대학원 학술상을, 영어영문학과 석사 졸업생인 후보생(지도교수: 박기성)이 대학원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 인문학의 근본, 우리의 근본마음

## 이재성

인문학의 제반분야에 공통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인문학은 자연과학, 공학, 의학, 법학 등의 타학문분야들과 구분되어, 그 대상이 인간이 보다 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인간자신이라는 점에 착안할 수 있을 것일 것이다. 인문학 전반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자체와 그것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내는가의 연구에 그 공통된 근원을 둔다고 하겠다. 즉 인문학에서는 사회와 세계의 현상들의 분석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만드는가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더 중요하며,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자체를 연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돈과 권력, 명예, 지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그 가치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 내는 것인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근본이 어떠한가를 바로알고 가치판단에 필요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인문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깨달을 바는, 가치판단을 하기 전의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마음이 남들과 세상에 온전히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라고 본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는 모든 현상과 그 가치를 넘어선다. 모든 현상과 가치는 선과 악, 유와 무 등의 이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상과 가치를 초월한다함은 우리의 마음은 더 근본적 차원에서는 이분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남들에게 진정으로 다 내어주는 사랑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진정한 사랑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의 중심에서 현실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지혜를 만드는 힘이라고 믿는다. 우리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세 단계 중 현재에서 권력과 돈 등에 관한 일들이 벌어지는 실태라고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지혜라 여기지 않는다. 참 지혜는 현상들이 그 모습과 성격으로 결정되기 전 단계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지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과정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참 지혜의 힘은 현실에 반하는 "이상"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전혀 그 개념과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 모든 역학적인 힘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 상태, 상태이전의 힘을 의미한다. 우리의 근본마음은 현실의 모든 개념을 만드는 이분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개념까지 초월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차원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성선설/성악설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다. 인간이 원래 선하다는 생각이나 선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근본적 차원에서 모든 개념들과 생각들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신, 열반, 초월, 진리는 우리의 열려있는 근본적 마음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의 근본마음은 대상에 대한 생각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한없이 드넓은 마음이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 위에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그 이성과 감성으로 표현될 만큼 작아질 수가 없다. 표현되어질 수 없는 진실로 초월적인 사랑과 진리로 향하는 지혜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괴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어둡고 혼탁한 마음이 현상을 볼 때에는 상과 개념을 이기적으로 만들어내어 지나치게 유와 무, 선과 악을 만들어 편 가르기를 하고 들러붙는 현상적 사랑을 하거나 적을 만들어 미워하며 전쟁까지 일으킨다. 현실의 궁극적 승리자가 되려면 판단의 이분성에 잡혀 허우적거리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지혜를 길러야 한다. 사랑의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말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성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마음은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물들을 소유하려고 애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될 수 없고 온전히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이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근본에서는 이미 오른뺨을 들이댄 상태임을 깨달으면 참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이전의 차원에까지 가라앉으면 성냄과 미워함, 질투, 집착으로서의 사랑 등이 없어지고 진정한, 표현 불가능할 만큼의 사랑의 힘과 마주친다. 이러한 진정한 인간의 상태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인문학과 종교, 예술이 증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근본 본성은 셀 수 없는 모든 상대들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있다. 보고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자신의 조그마한 주관으로서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나 붓다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온전한 사랑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하면 그 자체는 표현수단을 통해 재현 될 수 없으나 모든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온전한 근본마음과 그것이 현상들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인문학의 기반을 이루며, 인문학을 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근본상태를 깨달을 때 타학문분야에도 더욱 공헌하고 세상 전체에 더욱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필자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영문학(비평이론) 전공

##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대동제 마지막 날인 5월 18일(금), 학생, 교수, 일반인들의 열띤 호응 속에 주막을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5월 19일(토)에는 인문관에서 두 차례(1차 70명, 2차 60명)의 오픈캠퍼스를 개최하여, 학과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홍보를 하였다. 같은 날 인문관 412호에서는 부산한글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에서 후원하는 제19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국어국문학과 설승환(4학년) 학생이 「-어지다 구문 다시 보기-라는 논문으로 '논문기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9일 오후 5시 삼광사에서 열렸다. 5월 25일(금)에는 오는 8월에 졸업예정인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졸업사진 촬영을 했다. 6월 6일(수) 현충일에는 국문과를 비롯한 고교, 불문, 영문, 중문, 철학과 등 인문대 6개 학과 친선 체전이 열렸다. 농구, 축구, 발야구, 계주와 네 종목의 함께 하면서 학과 간 우의를 다졌는데, 국문과는 발야구 준우승, 계주 우승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3월 30일(금)~31일(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문인들이 다함께 모여 경주일대를 돌아보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을 포함한 90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 답사에 참가하여 경주의 유적지와 양동마을, 오어서 등을 둘러보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5월 12일(토), 중문과 일반/교육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발표에서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6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명이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각자 준비한 알찬 내용으로 동석한 신입생들의 논문/전공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교내 대외교류본부에서 지원하는 '학과/대학단위 학생파견사업'에 중문과가 정규/계절학기 모두 선정되어 이번 여름방학과 2학기에 중문과 학생 및 중문과 부·복수전공 학생들을 북경 외국어대학으로 파견한다. 우선 계절학기 학생들이 7월 1일 출국했다.

##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4월 26일(목)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래산성 동문에서 야외수업을 실시하였다.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공에 대해 토론하고 게임도 하였으며, 특히 신입생 전체와 일부 재학생들은 산행을 하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님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였다. 4월 6일(금)과 5월 3일(목)에는 각각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학위논문 중간발표회를 열었으며, 5월 31일(목)에 있었던 일어일문학연구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는 5명의 박사재학생이 연구테마를 발표하여 대학원생의 연구의욕고취와 학업발전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는 대동제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5월 18일(금)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막을 열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5월 19일(토)에는 번역학 사무실에서 제1회 오픈캠퍼스를 개최했는데 총 1,2회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서 예상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어영문학과



에 관한 학과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공별로 열린 (영어학 4월 20일, 번역학 4월 27일, 영문학 5월 4일) 2011년 후기 석/박사논문 본 발표회에서는 박사 3명, 석사 15명의 발표자들이 전공교수들과 재학생 및 신입생들 앞에서 논문발표를 했다.

##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 5월 19일(토) 학교 차원의 행사에 부응해 마련한 오픈 캠퍼스에는 1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하여 학과소개와 더불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대동제 축제 기간 중 5월 16일(수)~17일(목) 열린 불문학과 주막에서는 선후배 및 동문 간의 화합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계(6월 28일(목)~8월 7일(화)) 학과단위 해외파견 사업에 선정된 불문학과는 프랑스 브장송에 소재한 프랑쉬-공테 대학교로 10명의 학생을 파견하였다.

##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에서 주관한 한국독어독문학 2012년 봄철 연합학술대회가 4월 20일(금)~21일(토) 본교에서 열렸다. 「탈 경계시대와 한국독어독문학의 새로운 지형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대회는 오늘날 한국독어독문학의 새로운 지형도에 관해 학술 및 연구결과와 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독어독문학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5월 26일(토) 독일오월축제(Maifest)가 한국해양대에서 열렸다. 독일오월축제는 부산 소재 대학 및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독일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서 부산/경남 권에 거주하는 독일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부산 소재 5개 대학(부산대, 해양대, 동아대, 부산외대, 경성대)이 매년 돌아가면서 주최하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독일전통춤, 독일가곡, 독일어 연극 등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독일식 수제소시지와 맥주도 맛볼 수 있다.

##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학생들은 4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2박 3일간 지리산으로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다.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상호 화합을 다졌던 며칠간, 등산 일정이 있었던 이틀날엔 갑자기 내린 폭설로 모두가 당황했고, 어쩔 수 없이 셋째 날에 올랐던 노고단에서 학우들은 힘든 과정 중에서도 협력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

## 학과/연구소 소식



었다. 숙소에서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및 새내기와 선배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순한 유희의 MT가 아닌 그야말로 Membership Training이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리산 답사로 힘들었음에도 연이은 인문대 해오름식에서 노문과 학생들은 과(科)짱 응원식 및 새내기 스태프 공연도 잘 준비해 인문대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대동제 기간 중 16일(수)과 17일(목) 이틀간 주막을 열었던 노문과 학생회는 장사에만 신경 쓰지 않고 축제 분위기를 내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흥겨운 음악을 틀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 한문학과



한문학과에서 매년 대동제 기간에 여는 한문학과 학술축전이 5월 16일(수)~17일(목) 이틀간 개최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축전 첫 날은 '조선 후기 한문학과 천주학'이라는 주제로 한문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 학과 4학년생 16명이 발표 및 토론을 하였으며, 둘째 날엔 한문학과 BK21사업단 연구발표회가 있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효원성년제는 만20세가 되는 부산대 학부생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의 후원을 받아 한문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로서, 인문관 앞 소공연장(필로티)에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 재학생 40여명은 5월 3일(목) 독문·일문·한문학과와 공동개최한 인문대 4개학과 연합체전에 참가하여 여자 발야구 우승 및 남자 농구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넉넉한 터에서 열린 체전에서는 남자 축구, 남자 농구, 여자 발야구 등을 겨루었다. 대동제 기간 이틀간(5.16~17) 열린 주막에는 교수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한 동문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었다. 다른 학과와 보조를 맞춘 5월 19일(토)의 오픈 캠퍼스에서 동 학과는 고등학교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500여명이 지원하여 4시간에 걸쳐 전공에 대한 설명과 취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같은 날 삼광사 후원, 부산한글학회 주최로 열린 부산지역대학생 논문발표대회에서 언어정보학과의 김채영(10학년) 학생이 자료 분석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5월 26일(토)에는 언어정보학과 개설 20주년 기념행사가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열렸다. 1992년 언어학과로 개설되어 올해로 20년을 맞는 언어정보학과를 졸업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과 학과 교수,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함께 하였다. 1부는 인문대학장 축사와 학과교수 기념사, 동문회장의 회고사 등으로 마련되었고, 2부에는 재학생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한 합창과 단체공연이 펼쳐졌다.

### 사학과

사학과에서는 대동제 기간인 17일(목)~18일(금)에 "다른 주막 다 집어 삼켜주마!"라는 슬로건으로 주막을 열었는데, 학과교수, 학생, 대학원생 외에 일반인들도 함께 어울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학우들은 요리솜씨를 뽐내고 함께 주막을 운영하며 단합을 다지면서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5월 18일(금) 사학과강사인 김인선 박사가 대학원학술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8월 '1964년 미시시피 '자유여름' : 인종, 성, 계급의 갈등과 소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박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나



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5월 19일(토)의 사학과 오픈캠퍼스에서는 학과소개, 학과생활(학과생활 및 학과 내 학술 동아리 등), 장학금 제도, 졸업 후 진로 등을 설명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끝난 뒤에도 열띤 관심이 끊이지 않아 이번 호응에 힘입어 사학과에서는 7월에 제 2차 오픈캠퍼스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5월 30일(수) 학년 새내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건물구조 및 소장 자료검색, 대출 반납방법 등, 각종 서비스를 설명하는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했다. 6월 8일(금) 해외우수교수초청 특강에서는 중국 연변대의 강수옥 교수가 「중국 조선족의 형성과 민족정체성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철학과



철학과 교수 및 학부생 78명은 4월 23일(월)~26일(목) 중국의 청도, 태산, 곡부, 노산 지역으로 해외학술답사를 다녀왔다. 5월 11일(금)에 열린 제1회 철학과 콜로키움에서는 경희대의 이근세 박사가 '이성과 신의 문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관계'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였다. 한편 철학과의 1학기 학부 졸업논문발표회가 5월 25일(금) 인문관에서 열렸다.

### 고고학과



고고학과의 학부 2학년생 24명이 4월 24일(화)~27일(금) 3박4일 동안 김해 진례 두산요로 토기소성실습을 나가 토기를 직접 만들고 소성하는 체험을 하였다. 5월 16일(수) 스승의 날 행사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모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에서 마련한 세 차례의 연속기획특강(9회~11회)이 각각 「중국철학사의 키워드-타자와 디아스포라」(4.12[목] 성균관대 신정근), 「식민지말 한국문학, 근대성의 예 혹은 예외」 - 「벌레와 제국」, 한국 근대문학의 신화,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5.10[목] 성균관대 황호덕), 「재일조선인과 언어」(6.7[목] 도쿄게이지자대 서경식)라는 제하로 열렸다. 동 연구소 HK교수들의 연례 학술발표회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4월 25일(수)에는 「문화사이」에서 번역과 소통을 보다라는 주제로, 6월 14일(목)에는 「문화 담론과 문화 정체성의 역학」이라는 주제로 두 차

례(6, 7회)의 국내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 5월 31일(목) 밀양캠퍼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부산대와 일본 관서대/동경대, 중국 상해사범대 연사들이 「동아시아 고전번역학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희망의 인문학강의로서, 4월 매주 금요일에는 매축지마을 사랑방에서 「역사와 예술 속의 매축지와 그 주변」이라는 제하로 “매축지마을 및 그 주변의 형성과 개인의 역사 다시 보기”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5월 29일~7월 10일 매주 화요일에는 좌천아파트 2동 주민사랑방에서 「산복도로 다시보기-인문학과 예술로 본 주변의 잠재성」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각각 「로컬리티 시공간, 부산」(4.6[금]), 「공간이론과 로컬리티」(5.11[금]), 「로컬리티의 문화적 재구성성과 실천적 담론」(5.25[금])이라는 논제로 세 차례의 기획학술회의를 주재했다. 4월 20일(금) 영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월경하는 시네마: 이주, 경계, 공간」이라는 제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27일(금) 「선망과 질시의 로컬리티」라는 주제의 제5회 국내학술심포지엄을, 6월 21일(목)~22일(금)에는 「대안적 가치로서의 로컬리티: 저항, 혼종, 자율」이라는 주제의 제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5월 29일(화)에는 문헌정보학과 공동으로 「인터넷 촉박인가, 함정인가?-인터넷 중독의 양상, 원인, 그리고 대책」이라는 초청강연회가 있었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과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시민아카데미도 「부산의 상징, 부산의 기억」(박재환: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소장), 「부산, 산과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티앤홍: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 「임수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김창욱: 부경대)이라는 강좌로 4월~6월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열렸다. 시민아카데미에서는 6월 15일(금) 「옛길을 걷다」라는 역사문화답사를 했는데, 10월에 다시 한 번 마련될 예정이다.

### 점필재연구소



부산대학교의 점필재연구소와 중국 상해사범대학 고적연구소는 교육 및 연구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양 기관은 교수 및 연구자 교류, 학부 및 대학원생 교류, 공동연구 기획 및 협력, 학술자료 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인문한국(HK)고전번역+비교문화연구단은 5월 31일(목)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동아시아 고전번역학의 제문제」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중·일 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 간 번역으로서의 고전-번역학의 현황과 전망’, ‘고전번역학의 학문적 체계’를 탐색하며,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연구자들의 현재적 시각과 좌표를 확인하고 기능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3개의 분과로 7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현재 근대적 표상구도 속에 갇힌 고전번역학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 역학관계의 제문제를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고, 나아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문화와 문화를 횡단하면서 바람직한 문화의 교류와 소통의 문제에 고민하며 문화횡단적 질문을 던져, 보다 바람직한 고전번역학의 모델을 구성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홍성복 동문,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수상



5월 1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66주년 개교기념식 행사와 아울러 제9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식이 있었다. 정관계 2명, 사회·경제계 3명, 법조계 1명, 의료계 1명, 여성계 1명 등 총 8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인문대학 출신으로는 인문대 동문회장인 철학과 76학번 홍성복 트리샤 대표가 사회·경제계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다.

### 동문소식단신

| 김기섭 총장(사학 76)은 배만호 교수(영문 74)와 남덕현 교수(중문 82, 총동문화 국제부회장)를 대동해 중국의 상해, 청도, 북경 동문회를 방문하여 모교와 동문 간의 긴밀한 우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토&환경연구소의 소장인 우주호(영문 69) 동문은 영호남민간인협회의 영남측 대표로 2012년 7월 7일(토)~8일(일) 경남 사천시 엘리너스호텔에서 열린 <영호남민간인협의회 워크숍>(사회통합위원회, 포럼스교, 포럼신사고 공동주최) 행사를 주관하였다.

| 이진오(국문 78) 동문은 6월 18일(월) 온천장 하늘아래식당에서 ‘부산대학교 부산대학총문화위원회’ (가칭)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주관하였다.

| 국어국문학과 77동기회는 7월 7일(토) 서면의 강화삼계탕에서 2012년 정기모임을 가졌다.



### 교수 연구년 및 국외파견

#### 국외파견

최규수(국어국문학과) | 중국 청도이공대학, 1년(2012.2.20~)

인성기(독어독문학과) |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1년(2012.3.1~)

주광순(철학과) | 독일 쾰른대학, 1년(2012.1.15~)

#### 국내파견

정출현(한문학과) | 한국고전번역원, 1년(2012.1.1~)

#### 연구년 A

윤애선(불어불문학과) | 부산, 1년(2012.3.1~2013.2.28)

양은경(고고학과) | 미국 하버드 엔칭 연구소, 1년(2011.9.1~)

#### 연구년 B

조태흠(국어국문학과) | 중국 상해공상외국어직업대학  
1년(2012.2.20~)

고현철(국어국문학과) | 1년(2012.3.1~)

김임숙(일어일문학과) | 1년(2011.9.1~)

김인택(언어정보학과) | 1년(2012.3.1~)

### 교수동정단신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4월 28일(토)~5월 7일(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중서문화/문화국제교류학술회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와 **이상도** 교수(영어영문학과)는 4월 22일(일)~25(수) 오는 10월에 만료될 부산대학교-중국하남이공대학 간의 한국어문화원 협정기간을 재협약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와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6월 8일(금)~11(일) 중국 상해교통대학을 방문하여 양교의 교류 확대 방안 논의와 아울러 현지 동문화 행사에 참석하여 임원 면담을 하였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6월 30(토)~7월 1일(일) 일본종합학술학회 2012년도 춘계대회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정병인** 교수(영어영문학과)는 6월 14(목)~17(일) 중국에서 열린 2012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윤애선** 교수(불어불문학과)는 5월 21(월)~6월 5일(화) 다국어 언어자원 구축 및 표준화에 관한 공동 연구 협의차 미국에 다녀왔다.

| **김성진** 인문대학장(한문학과)과 **배만호** 교수(영어영문학과), **정해왕** 교수(철학과)는 4월 14일(토)~18일(수) 상해 교통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지역 동문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 **김동철** 교수(사학과)는 6월 7일(목)~12일(화) 협동기획연구 과제인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 연구를 위한 현장답사와 관계자 면담 및 자료수집 차 일본 하코다테 현지에 다녀왔다.

| **김용환** 교수, **김준수** 교수, **문성원** 교수, **박정심** 교수, **박준건** 교수, **손영삼** 교수, **이영철** 교수(이상 철학과)는 4월 23일(월)~26일(목) 학부 학술답사 팀을 인솔하여 중국에 다녀왔다.

| **임상택** 교수(고고학과)는 4월 18일(수)~24일(화) “한국 상고문화의 기원과 중국동북지방” 프로젝트를 위한 답사를 하고, 상해 교통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중국 지역 동문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 신간소개



####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강명관 지음, 휴머니스트, 2012

강명관 교수(한문학과)는 지난 4월 휴머니스트에서 발간하는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를 펴냈다.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는 그것을 제작하는 주체의 욕망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 역시 그것을 제작하는 혹은 요구하는 남성의 욕망과 의도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해 갔는지를 추적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를 요구하고 만들었던 주체는 남성-양반이었던 것이다. 조선 건국 이후 남성-양반은 성리학에 입각한 유교적 가부장제를 진리로 믿었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여성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맞는 여성의 성역할을 제작하여 여성의 대외에 주입하고자 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여성상(女性像)’은 바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결과물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선시대 회화와 소수의 판화를 제재로 삼아, 남성-양반의 진리로 믿었던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해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밝히고 있다.